“가피 · 신앙, 학술연구 · 조명 필요”

인터뷰 – 신행 장려 위해 학술상 제정한 성운 스님

한국불교학회 퇴임 앞두고
사재 출연해 학술상 제정
1회 수상자 황상준 등 선정

“가피는 신앙 증명 중요 사례
이를 통해 수행 정진 이어져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행 가피 사례를 밝히면 현실에서는 터부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적 연구 주제로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사진〉은 5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운학술상(불교학술진흥상) 제정 취지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학회장 퇴임을 앞두고 사재를 출연해 학술상을 제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성운 스님이 학술상을 제정한 이유는 오롯이 ‘신행 장려’라는 원력 때문이다.

일반 신자들은 염불과 기도 등의 신행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교는 자력종교’라는 미명 아래 부정돼 왔다.

“종교에서 신심은 중요합니다. 기복적인 요소가 있어서도 기도와 염불은 중요한 신행이죠. 중요한 것은 기복에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자기 변화를 체험하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이는 스님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고민해야 할 연구 주제입니다.”

성운 스님은 새로 제정된 학술상을 통해 학계와 일선 신도 간의 간극이 좁아지길 기대했다.

“한국불교와 불교학계가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신행과 실천으로서의 불교입니다. 학술상은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촉진 ·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학회장의 소임은 내려놓지만, 이 같은 현실을 한국불교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학자들이 늘 화두에서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교 연구와 현실이 서로 반응하고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퇴임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신행과 실천에 대한 불교학자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관심을 제안한 2년이었다”고 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 중 하나가 학술상 제정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불교와 4차산업’ 국제 학술세미나였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불교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불교가 돼야 합니다. 학자들은 늘 이에 답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와 4차산업’ 국제 학술세미나를 기획한 동기입니다. 앞으로도 사회 현실에 부응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신앙분야 관련 연구가 이뤄져 한국불교와 전법 포교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1회 성운학술상 수상자로는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의 ‘염불신앙을 통한 현대재가불자의 가피사례 연구’와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교육과정 텍스트로서의 정토삼부경의 재조명’ 등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없다.

시상식은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우수상 수상자 2명에는 200만원, 장려상 수상자 3명에는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불교와 불교학,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지향-인간을 고민하는 불교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의 한계와 전망(강형철/ 동국대) △불교사상사 연구, 개념과 현실 사이의 잃어버린 접점(석길암/ 동국대 경주) △불교사 쓰기의 오류와 방법론적 극복(한지연/ 금강대)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새 랜드마크 ‘로터스관’ 첫 삽

4일 기공식 · 개교 112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총장 보광)의 새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의 첫 삽이 올랐다. 동국대는 5월 4일 이해랑예술극장 앞에서 로터스관 기공식 및 개교 1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기공식과 개교기념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 교직원, 학생,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식사에서 “개교 1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로터스관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오늘 기공식이 캠퍼스의 경계를 뛰어넘어 교사와 교지를 동시에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순간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평화불사를 특별히 제안했다. “로터스관 공사의 시작과 과정 전체가 평화로운 불사가 되도록 종단, 동문, 학생, 교수, 불자 등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동국대 중문(혜화문) 일대에 건축되는 로터스관은 지하 6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연면적 약 7,700평 규모이다. 로터스관은 △대형 컨벤션 시설 △각종 복지 · 편의시설 △박물관 및 전시시설 △불교 교육 및 연구 공간 △동창회 및 사무공간 등 교육연구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동국대는 공간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 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 서울시로부터 중문(혜화문)일대 국유지 남산공원 구역해제를 인가받으며 2016년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세부시설조성 기본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중강당서 개교 1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공로상, 근속상, 동국학술상, 우수연구자상, 대학원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등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학술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원들에게 수여하는 ‘동국 학술상’ 논문부문에는 유병승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안선신 수학교육과 교수와 한용수 중어중문학과 교수, 산학협력부문에서는 이강우 컴퓨터공학전공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성민 기자



어버이날 배식봉사 나선 설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에 나섰다.

설정 스님은 5월 8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봉사를 했다. 설정 스님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총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갈비탕 등을 배식하며 인사를 건넸다. 배식 직후 설정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배식 봉사 후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의 센터 소개와 사업내용 보고가 이어졌다. 봉사에는 설정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 등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올해 불자대상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등 5명

김영임 · 엄홍길 · 김춘순 · 이상호, 5월 22일 봉축법요서 시상


엄현성


김영임


엄홍길


김춘순


이상호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에 엄현성(해군참모총장) · 김영임(국악인) · 엄홍길(산악인) ·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 이상호(스노보더) 등 5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설정)는 “5월 10일 불기2562년도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엄현성 불자는 1981년 임관 이후 불교에 대한 신앙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군불자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37년간 주요 지휘관 및 참모직을 역임하면서 해군사관학교 군법당(진해 호국사)과 제3함대사령부 군법당(해광사) 등 많은 군두배 법당시설 불사를 원만회향 했다.

김영임 불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으로 50여 년 동안 음성을 통한 대중포교에 매진했다. 1972년 부모은중경의 효정신을 담아낸 불교가사인 회심곡 완창음반을 발매해 국악계 최초 100만장을 돌파했으며, 불교음악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찬불가 대중화에도 이바지했다.

엄홍길 불자는 세계 최초 8000m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으로 등반할 때는 텐트에 법당을 만들고 기도하는 독실한 불자다. 2008년에는 엄홍길휴먼재단을 창립,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신도증 홍보대사와 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춘순 불자는 국가예산정책 업무 등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준 불자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국회 직원불자회 고문 등을 지내면서 종단 발전 및 국회 내 불자모임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상호 불자는 2017년 동계아시안게임 및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체육인이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평창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첫 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했다. 또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에 출전해 유능한 불자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동국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참사람을 키워내겠습니다



로터스(LOTUS)관
건립 예정인 지하 6층, 지상 3층, 연면적 7,700평 규모의
동국대학교 랜드마크 건물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파라미타 칼리지를 통한 참사람 양성


의료원 – 자비인술의 실천을 통한 악사여래의 원력 실현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전산원